

# 38

## 부활하신 예수님

눅 24장, 고전 15장  
찬송가 157장 (즐겁도다 이 날), 찬양 95장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배울



1.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주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임을 압니다.
2.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보증임을 알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압니다.



만일 가 다시 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전 15:16~19)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20)

But now Christ is risen from the dead, and has become the first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1 Co 15:20)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②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성경을 읽고 찾아 정리해 봅시다(마 28:9, 막 16:9, 고전 15:5~8).

2

'말씀을 이해하기'에 적힌 부활의 의미를 옮겨 적어봅시다.

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고전 15:12~19)?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은 무엇인가요(고전 15:20~22)?

4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리해 봅시다(고전 15:32~34, 58). 그리고 나의 각오를 적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욥 16:1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막 16:6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롬 4:25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고전 15:17

---

---

---

---

---

---

---

---

↓

골 2:12

---

---

---

---

---

---

---

---

↓

골 3:4

---

---

---

---

---

---

---

---

↓

벧전 1:3

---

---

---

---

---

---

---

---



## 잠자리와 유충

한 마리의 잠자리가 연못 위를 맴돌며 물 속을 쳐다보다가는 하늘로 날아가고 다시 물 속을 쳐다보다가 하늘로 날기를 여러 차례하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에 있던 여치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니? 아까부터 연못 위를 맴돌던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잃어버린 것이라도 있으면 말해 봐.”

“뜻은 고맙지만 땅 위에 사는 너에게는 불가능해. 실은 연못 속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훨훨 날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너는 연못 속에서 나왔니?”

“응, 어제 나왔어. 연못에 있을 때는 이런 넓은 하늘과 땅이 있는 것조차 몰랐거든.”

“연못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니?”

“그 더럽고 냄새나는 연못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실은 함께 지내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늙은 형제가 했던 말이 내게 사실로 나타난거야. 그는 항상 ‘우리는 이 좁고 더러운 곳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공중으로 날아간다. 그때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고 말하곤 했거든. 그렇지만 함께 지내던 형제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 그리고 그 늙은 형제의 말을 무시해버렸지.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나는 그 늙은 형제의 말을 모두 믿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된 거야. 나는 그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그 늙은 형제의 말이 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나님은 한 마리의 유충에게까지도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출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  
하리라 (고전 15:51~52)



## 질문 있어요~



잠언 24장 27절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라는 말씀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 4:9)

위 말씀처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결혼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성인이 되었으면 어떤 일이든 해야 합니다. 아직 정신적·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예속되어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도 부모님께 간섭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만 결혼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야 진짜 신앙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기쁘게 해야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어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독생자를 내게 줬으니 너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게 바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요구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힘든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나뉘고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고 돈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인격이 부족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건강, 부, 명예 등의 육신적인 것들이 모두 제거되어야 그 사람의 참 인격만 남게 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